

배포 일시	2022. 6. 14.(화)		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안전정책관실 항공교통과	책임자	과 장 장창석 (044-201-4294)
		담당자	사무관 정혜인 (044-201-4303)
보도일시	2022년 6월 15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15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경북도민의 관문, 포항공항 결항률 낮아진다

- 특별승인비행절차 수립 통해 결항률 6.6%→2.1% 대폭 개선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6월 16일부터 경북도민의 관문 공항인 포항공항에 새로운 비행절차인 ‘특별승인비행절차(이하 RNP AR\*)’ 를 도입한다.

\* RNP AR(특별승인비행절차,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Authorization Required): 항법 정밀도를 0.3해리(약 556m)에서 0.1해리(185m)까지 높인 절차

○ 지난 1년간 기상관측자료를 토대로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RNP AR의 도입을 통해 포항공항 결항률이 6.6%에서 2.1%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포항공항은 활주로 양 방향에 인덕산과 조항산이 위치하고 있어 기상 제한치\*가 높아 이용객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.

\*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식별하기 위한 최저 운고, 시정 기준

○ 과거 ‘16~ ‘20년까지 5년간 포항공항 운항 현황을 살펴보면, 5,245편 중 336편이 결항하였으며, 이 중 저시정, 저운고\*\* 등 기상요인이 94%로 가장 큰 원인이었다.

\* 저시정, 저운고 : 공항 이착륙시 안전한 비행을 위해 결정된 최저 가시거리, 최저 구름 높이로 공항별로 항행안전시설, 항공등화 등 여건에 따라 정하고 있음

□ 이에 국토교통부는 ‘20년 말부터 부산지방항공청, 포항시 등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하여 포항공항 결항률 개선을 위한 新비행절차 도입을 추진하였다.

○ 그 결과, 포항공항 활주로 양방향에 위성을 이용하는 절차 중 최고 높은 수준의 항행정밀도를 가진 新비행절차(RNP AR\*)를 수립하여 시정 제한치를 4,000m에서 2,800m로 낮추었다.

○ 또한, ‘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(KASS, ‘23년 말 예정)’ 이 완성되면 이를 활용하는 보다 정밀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결항률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\*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: GPS 위치오차를 보정하고, 보정된 정보를 전 국토에 제공하여 현재 위성 위치오차 17~37m를 3m 이내까지 줄일 수 있음.

□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 “이번 新비행절차 도입을 통해 경북도민의 관문 공항인 포항공항 활성화와 항공이용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, 국토부는 항공교통의 안전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국토교통부 <총괄>	항공안전정책관실 항공교통과	책임자	과 장	장창석 (044-201-4294)
		담당자	사무관	정혜인 (044-201-4303)
부산지방항공청 <공동>	항공관제국	책임자	국 장	이호진 (051-974-2105)
		담당자	팀 장	김영철 (051-974-2241)
경상북도	통합신공항추진단	담당자	주무관	이현지 (054-880-8845)
포항시	대중교통과	담당자	팀 장	석상문 (054-270-3453)

